

● 희망세상을 발간하면서

미래세대에 민족이 지향할 올바른 목표를 제시 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연초 출범식을 통해 탄생을 알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반년을 넘게 보낸 뒤 월간 소식지 '희망세상'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기구인만큼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기념사업회가 감당해야 할 몫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명감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험난했던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적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경험과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기구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운동과 사건들, 그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몸 바쳐 햇불이 되신 의인과 열사들,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민초들의 값진 발자취를 찾아 그 사료들을 수집, 보존, 편찬, 기록, 연구하여 우리 겨레가 영원히 자랑스럽게 간직할 역사적 정신적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기념사업회가 할 일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겨레의 정신적, 역사적 유산을 넘겨주고 민족이 지향할 올바른 목표를 제시하여 오늘의 세대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음 세대가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현대역사박물관으로 기능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전산화 및 편찬, 각종 기념·추모행사의 주관, 민주화운동 정신선양사업, 민주시민교육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여 민주화운동 정신의 지속적인 구현과 미래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망세상'은 이같은 목표를 위해 국민들에게 사업회를 알리는 매체로 기능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런 역사를 국민적 자긍심으로 승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게 하는 매체의 역할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작은 시작입니다만 앞으로 희망이 열리는 세상, 희망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형규 이사장